논문 02

대학 졸업 후 취업의 질에 대한 대학 명성 및 대학교육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

이 길 재[1] · 김 희 성[2] · 강 지 연[3] · 박 인 호[4] · 박 태 양 · 안 은 비 · 차 준 우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의 질에 대학 명성 및 대학교육의 성과가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취업의 질 변수에 따라 이분형 변수인 취업여부와 정규직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사용했으며, 연속 변수인 임금 수준 및 직무만족은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명성은 취업할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학생, 휴학 경험, 대학원 경험이 취업을 할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강의의 질은 취업할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의 성별, 휴학여부, 대학원 진학 여부, 수업태도, 대학명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직무만족에 대한 분석 결과, 자연, 의학 전공계열이 준거집단인 인문 계열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은 대학생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며, 대학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은 단순히 취업의 여부만을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취업 전반에 걸친 질적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학들은 단순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 외에도 취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생 취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에 따라 대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부모의 기대수준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더불어 과대한 교육열과 대

1)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장
2)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학사주무관
3)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 전임연구원
4)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 연구원(이하 생략)

학입시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객관적인 결과에 기반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형성된 대학의 위계적 서열 순위가 중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 교육과정의 우수함에 대한 검증과는 별개로 대학에서의 졸업장 혹은 네임밸류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 면접 서류상에 대학명 기입을 없애는 등 대학의 위계적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없는 '대학순위'는 대학에 우수 입학자원을 제공하는 데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대학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대학의 성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및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취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대학의 명성 자체가 지닌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 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 또는 대학교육의 성과 등만을 변수로 활용하는데 그쳐, 대학마다 지닌 구조적인 효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여러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취업의 여부에 따른 취업결정요인과, 학교생활(과정)에 따른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취업 여부에서 나아가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 특성 변인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대학의 명성에 대한 변인을 주요 변수로 하고, 대학의 명성을 통제했을 때 대학에서의 경험과 대학교육의 성과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대학 기관 차원에서의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의 명성은 졸업생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의 명성을 통제했을 때, 졸업생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경험 요인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검토

대졸자 취업에 관한 연구는 교육을 받은 결과가 졸업 후 직업의 종류나 지위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지위획득과정(status attainment process)" 연구 경향이 주로 쓰인다. 이 분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가정배경이라는 귀속적 요인과 학교교육이라는 성취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김영화, 1997; 박환보, 2011).

대학 졸업 후 취업의 질에 대한 대학 명성 및 대학교육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졸자 취업결정 요인을 탐색하였다. 취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인적자본이론(Becker, 1964), 신호이론(Spence, 1973), 통계적 차별이론(Cain, 1976),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론(Dickens&Lang, 1985) 등을 통해 밝혀진 대표적인 대졸자 취업결정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기성·조민수, 2016).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학력과 가구소득) 등이 있다. 성별 요인은 여성의 혼인 및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채용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연령의 경우는 분석대상이나 취업자 정의, 분석방법상의 차이 등으로 연구자마다 연구결과가 상이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은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의 질이 높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많았다.

다음으로 대졸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으로 최종학력, 대학유형, 전공, 명성 등이 있다. 최종학력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고졸자나 4년제 대졸자보다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 설립유형의 경우 4년제 대졸자에 한하여, 국·공립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사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학 전공요인은 인문·자연계열에 비해 사회·공학·교육·의약 계열의 취업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많다. 대학 명성의 취업효과는 대학 명성을 무엇으로 정의하였는가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명성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규용·김용현(2003)은 대학 명성을 4년제 대학별 입학생의 대학입학 수능성적 성적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나머지 대학으로 구분하여, 대졸자의 미취업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다른 영향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의 경우 미취업탈출확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채구목(2007)의 연구에서도 수능점수를 활용하여 국내 대학을 수도권/비수도권의 국·공립대학, 사립대, 전문대 6개 그룹으로 나눈 후 대학 명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았음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역량 요인으로 학점, 어학연수, 자격증, 교육훈련 참여, 일자리 경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등이 있다. 대학성적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하며, 어학연수 경험은 첫 취업까지 기간을 단축시키고 일자리에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있다. 자격증 취득 및 교육훈련에의 참여, 일자리 경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타요인으로 지역 요인 등이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취업의 질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의 질 개념은 고용의 질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취업의 질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해외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Jencks et al(1988)는 급여, 부가급여, 근무시간, 직업의 사회적 지위, 훈련 및 승진 기회, 고용위험, 교육요건, 근무여건, 자율성, 권한, 조직환경 등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좋은 일자리 지수를 개발하였다. Clark(1998)은 수입, 근무시간, 미래전망, 작업난이도, 직무 흥미, 위세, 독립성, 인간관계 등으로 취업의 질을

측정하였다. Bonnet et all(2003)도 고용보장, 직무보장, 작업의 안전, 숙련·재생산의 보장, 표현의 보장, 수입의 보장 등으로 취업의 질을 측정하였다. Ritter&Anker(2002)는 객관적 지표 대신 임금, 부가급여, 일의 특성, 자율성 또는 독립성, 승진기회, 숙련향상 가능성 등의 6가지 영역에서 응답자의 만족도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였다(김정민 외, 2015).

국내 취업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취업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구성 및 산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하남·이상호(2006)의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good job)'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국 실정을 반영한 좋은 일자리 측정 지표로 임금수준(월평균임금), 현 일자리의 직업위세(직업 사회경제지수 활용),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직장과 직무 만족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 값)를 선정하였다. 최옥금(2005)은 괜찮은 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Anker at al,2002)를 참고하여 임금수준(중위임금의 50% 이상), 전일제 일자리(노동시간이 1일 8시간, 1주 6일, 1년에 50주 이상), 상용직 일자리(임시와 일용직 제외),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노조가 존재하는 일자리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하남 외(2007)은 한국 실정에 맞는 국가 및 기업 수준의 고용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뿐 아니라, 개인 일자리를 분석단위로 하는 "좋은 일자리(Good Job)" 지수를 개발하였다.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직무/직업 특성(자율성, 권한, 위세), 고용안정(정규고용, 고용안정성), 발전 가능성(숙련향상 가능성, 승진 가능성), 보상(급여, 부가급여), 근무조건(근무 시간, 작업 환경), 관계(참여/발언, 인간관계) 등의 6개 하위차원 및 13개의 세부지표와 각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최기성·조민수(2016)는 대학 명성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대학 요인(출신대학 유형, 전공), 직무역량 요인(대학평점, 어학연수, 자격증, 교육훈련, 일자리 경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역 요인(대학소재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명성(대학 노력)이 졸업생 취업의 질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로 졸업생 취업의 질 결정요인에 졸업생의 수능점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며, 그를 통해 순수한 학교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명성(selectivity)을 '대학 입학 점수'(대학별 입학 점수 평균)를 활용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졸자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특성 요인 분석>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중, 대졸자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특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요약하면, 개인 수준 요인으로써 성별,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전공(복수전공), 학점, 휴학경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 일자리 경험, 외국어 능력, 인턴십 참여 경험 등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대학 수준 요인으로써 대학 배경에 해당하는 소재지, 설립유형, 규모 등과 같은 요인과 대학 여건을 보여주는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대학 여건 및 재정, 대학교육 및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대졸자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특성 요인

연구자	독립변인		분석결과 (종속변인)
	개인요인	대학요인	
강주연, 오유, 김기승(2015)	성별, 연령, 혼인 여부, GPA, 직업훈련, 자격증, 토익성적, 어학연수경험, 제2외국어성적, 복수전공, 취업목표, 부친교육수준, 모친교육수준, 학비지원, 년도특성	대학종류, 소재지, 전공계열	취업여부, 취업 소요기간
김현동(2013)	성별, 최종학력, 취업형태, 소속직업군, 회사규모, 임금수준, 회사재직기간, 학점, 영어점수유무, 가계소득수준, 부교육수준, 경력및목표	대학소재지 집단구분: 어학연수, 취업및진학준비, 경제적사유	임금수준, 취업소요기간, 합격률
박환보(2012)	성별, 연령, 출신고교, 부모학력, 월평균가구소득, 학점, 어학연수비용, 학외직업훈련참여여부, 취업률, 정규직취업률	서열유형, 준칙주의여부, 신입생충원률	취업유무, 정규직여부, 대기업여부, 직업지위지수, 임금
박환보, 김성식(2011)	성별, 연령, 부모학력, 부모소득수준, 출신고교, 성적, 어학연수비용, 학내취업준비프로그램, 학외직업훈련	준칙주의, 신입생 충원률, 평균취업률, 평균정규직취업률, 서열유형	임금, 직업지위지수
심재휘, 김경근(2015)	성별, 연령, 부모학력, 가계소득, 이수학기수, 졸업평점, 전공계열, 편입여부, 복수전공여부, 학내취업프로그램참여종류수, 어학연수경험, 취업교육훈련경험, 인턴경험, 소지자격증수	설립유형, 소재지, 교육내용만족도, 지원제도·시설만족도, 전임교원1인당학생수, 학생1인당교육비, 대학평판	임금, 정규직여부
오호영(2007)	연령, 성별, 결혼여부, 기업규모, 고용형태, 근속기간	수능점수, 교수1인당학생수, 학생1인당건물면적	임금
정수연, 박기성(2013)	대입당시가구소득, 일반계고등학교졸업여부, 휴학기간, 성별, 연령, 전공계열, 부교육연수, 모교육연수	학교구분, 대학소재지	취업여부, 임금
주휘정(2010)	성별, 연령, 결혼, 부학력, GPA, 전공계열, 입학형태, 경력개발프로그램, 어학연수, 인턴쉽, 고용형태, 근무지, 교육일치, 기술일치, 전공일치	설립형태, 지역, 규모, 대학평균수능점수, 대학만족도, 교수당학생수, 교육비환원률, 중도포기율, 교수당연구실적, 신입사원채용평판도	임금
채구묵(2007)	성별, 연령, 학력, 전공, 학교성적, 자격증	학교군, 학교소재지	취업유무, 고용형태, 임금

연구자	독립변인		분석결과 (종속변인)
	개인요인	대학요인	
채창균, 김태기(2009)	연령, 모학력, 월평균가구소득, 전공, 학점, 복수전공여부, 재학중일자리경험, 해외어학연수, 자격증, 공사시험준비, 휴학경험, 사교육참여	대학소재지, 설립유형, 대학의교육지원노력	취업유무
황여정, 백병부(2008)	연령, 부모학력, 가정의소득분위, 전공, 다전공이수여부, 평균학점수준, 자격증, 취업목표, 어학연수비, 취업사교육비	대학소재지, 대학지원만족도	취업유무, 대기업정규직여부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용한 자료의 범위는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 시점인 5차년도(2008년)부터 12차년도(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로 제한하였으며, 개인수준과 대학수준으로 다층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대학별 사례수가 10이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분석대상은 690명이며, 40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명성이 졸업생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한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우선 종속변수는 취업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들로, 취업여부(취업, 미취업), 임금수준(4분위 수로 집단화), 직무만족도 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는 대학의 명성 변인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명성을 활용한 대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의 명성(selectivity)을 대학의 입학점수로 활용(Pascarella & Terenzini, 2005)하고 있음에 따라 응답자의 입학년도와 유사한 2009년 대학별 입학 평균 변수를 활용하였다. 2008학년도는 수능 등급제를 운영함에 따라 변수의 활용이 어려운 바, 대리변인으로 2009년 입학점수를 활용하였다. 개인배경을 설명하는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대학배경으로 대학 소재지 등을 투입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등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 변수	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임금수준	150만원 이하=1, 150~180만원=2, 180~225만원=3, 225만원 초과=4
	직무만족도	5점 척도
독립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입학 전형	일반전형=1, 특별전형=2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1, 공학=2, 자연·의학=3, 예체능=4
	다전공	다전공=1, 단일전공=0
	휴학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대학원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수업태도	5점 척도
	강의의 질	5점 척도
	대학생활만족도	5점 척도
	시설만족도	5점 척도
	진로지도, 면담	지도교수와의 면담 횟수 평균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1, 경험 없음 =0
	졸업평점평균	0 ~ 4.5
	대학 명성	0~536.09
	대학소재지	수도권=1, 지방=0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명성이 졸업생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취업의 질 변수에 따라 이분형 변수인 취업여부와 정규직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연속 변수인 임금 수준 및 직무만족은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에 포함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이 구안되면 먼저, 전단계로 회귀분석 및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로짓분석에서는 odd-ratio를 제시하여 변수의 설명력을 높이고,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 회귀계수와 함께 표준화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대학명성과 함께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동일 집단 내의 학생들 간 유사점이 존재함에 따라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위배할 수 있음에 따라서 2수준 모형인 다층 로짓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다시 분석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하였다.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분석

취업의 질에 대학 명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위계적 선형모형 및 로짓분석-다층 로짓모형을 적용허가 전에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대학 690명의 대상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취업이라는 선제조건이 필요한 종속변수(정규직, 소득수준, 직무만족)은 690명 중 취업을 한 347명이 사례수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이 5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규직은 79%로 확인되었다. 소득수준은 3.37 정도의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직무만족은 3.4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특성변인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교육)계열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학, 자연의학, 예체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다전공을 경험한 비율은 19%로 나타났고, 휴학을 경험한 비율은 14%, 대학원을 재학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수업태도는 3.6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강의의 질 역시 3.75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대학 만족도변인을 보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32이며, 대학시설 만족도는 3.59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와의 면담 혹은 상담은 1.69으로 1시간 이상 수준의 지도교수와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활 간 아르바이트 경험은 26%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대학수준의 변인으로는 대학명성에 해당하는 입학점수는 평균 443.77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의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구성 및 설명**

stats	N	mean	sd	min	max
취업	690	0.50	0.50	0	1
정규직	347	0.79	0.41	0	1
소득수준	347	3.37	1.05	1	4
직무만족	347	3.45	0.63	1	5
남성	690	0.53	0.50	0	1
인문사회(교육)	690	0.50	0.50	0	1
공학	690	0.28	0.45	0	1
자연의학	690	0.17	0.38	0	1
예체능	690	0.04	0.20	0	1
다전공	690	0.19	0.39	0	1
휴학	690	0.14	0.34	0	1
대학원	690	0.18	0.39	0	1
수업태도	690	3.66	0.43	2	5
강의의 질	683	3.75	0.46	2	5

stats	N	mean	sd	min	max
학교생활 만족도	690	3.32	0.46	1	5
대학시설 만족도	690	3.59	0.51	2	5
지도면담	685	1.69	0.55	1	6
아르바이트	690	0.26	0.44	0	1
대학명성	690	443.77	80.27	295	536
수도권	690	0.41	0.49	0	1

2.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 취업 여부

취업 여부에 대한 대학 명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odd-ratio가 0.997로 취업할 승산을 0.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들을 보면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에 참여할 승산을 60.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학 경험은 취업을 할 승산을 76.5% 낮추는 것으로, 대학원 경험 역시 취업을 할 승산을 7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의 질은 취업할 승산을 72.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 여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Z	[95% Conf.Interval]	
남자	0.392***	0.076	-4.860	0.269	0.572
전공계열					
공학	1.469	0.346	1.630	0.926	2.331
자연,의학	1.322	0.330	1.120	0.810	2.156
예체능	1.254	0.558	0.510	0.525	2.999
다전공	1.028	0.241	0.120	0.649	1.626
휴학여부	0.235***	0.068	-4.980	0.133	0.416
대학원	0.220***	0.057	-5.850	0.133	0.366
수업태도	0.829	0.206	-0.750	0.509	1.350
강의의 질	1.724+	0.515	1.820	0.960	3.095
학교생활 만족도	1.242	0.400	0.670	0.661	2.334
대학시설 만족도	0.941	0.221	-0.260	0.593	1.491
지도면담	0.994	0.169	-0.030	0.713	1.387
아르바이트	0.919	0.180	-0.430	0.625	1.350
평점	1.289	0.264	1.240	0.863	1.926
대학명성	0.997+	0.002	-1.820	0.994	1.000
수도권	1.088	0.287	0.320	0.648	1.825
상수	0.509	0.578	-0.590	0.055	4.718

*** p<0.001, ** p<0.01, * p<0.05, + p<0.10

나. 정규직 여부

정규직 여부에 대한 대학 명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들을 보면 대학원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원의 경험은 정규직이 될 승산을 82.6%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태도와 강의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1). 세부적으로 수업태도가 1단위 높아질수록 정규직이 될 승산이 132.7% 증가하며, 강의의 질 또한 1단위 높아질수록 정규직이 될 승산이 15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규직 여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Z	[95% Conf.Interval]	
남자	0.683	0.230	-1.130	0.353	1.321
전공계열					
공학	1.564	0.658	1.060	0.686	3.566
자연,의학	1.067	0.445	0.160	0.471	2.415
예체능	0.616	0.378	-0.790	0.185	2.049
다전공	1.502	0.656	0.930	0.637	3.537
휴학여부	0.655	0.392	-0.710	0.203	2.120
대학원	0.174***	0.079	-3.840	0.071	0.425
수업태도	2.327+	1.025	1.920	0.982	5.515
강의의 질	2.553+	1.300	1.840	0.941	6.928
학교생활 만족도	0.580	0.315	-1.000	0.200	1.681
대학시설 만족도	0.800	0.333	-0.540	0.354	1.808
지도면담	0.794	0.226	-0.810	0.455	1.386
아르바이트	0.686	0.240	-1.080	0.345	1.364
평점	1.367	0.442	0.970	0.725	2.578
대학명성	0.999	0.003	-0.370	0.994	1.004
수도권	1.883	0.881	1.350	0.753	4.710
상수	0.062	0.113	-1.520	0.002	2.227

*** p<0.001, ** p<0.01, * p<0.05, + p<0.10

다. 임금수준

취업의 질에 대학 명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임금수준을 종속변수에 두고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회귀모형의 조정된 설명력(R^2)은 0.14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취업 후 임금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학생의 성별(p<0.01)과 휴학여부(p<0.001), 대학원 진학 여부(p<0.01), 수업태도(p<0.05), 대학명성(p<0.01)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 중 휴학여부가 임금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수준에 대한 자세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임금수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Coef.	Beta	SE	t-value	[95% Conf.Interval]	
남자	0.242**	0.115	0.087	2.770	0.070	0.414
전공계열						
공학	0.032	0.014	0.106	0.300	-0.175	0.240
자연,의학	-0.047	-0.017	0.112	-0.420	-0.266	0.172
예체능	-0.181	-0.035	0.202	-0.890	-0.578	0.216
다전공	0.011	0.004	0.105	0.110	-0.196	0.219
휴학여부	0.448***	0.146	0.121	3.720	0.212	0.685
대학원	0.371**	0.138	0.113	3.270	0.148	0.593
수업태도	0.247*	0.098	0.113	2.180	0.024	0.469
강의의 질	-0.143	-0.062	0.134	-1.070	-0.406	0.120
학교생활 만족도	-0.166	-0.070	0.145	-1.140	-0.451	0.120
대학시설 만족도	0.028	0.014	0.106	0.270	-0.180	0.237
지도면담	0.067	0.035	0.078	0.860	-0.085	0.220
아르바이트	0.065	0.027	0.089	0.730	-0.110	0.239
평점	-0.020	-0.009	0.094	-0.210	-0.204	0.165
대학명성	0.003**	0.219	0.001	3.810	0.001	0.004
수도권	0.104	0.049	0.118	0.880	-0.128	0.336
상수	1.824		0.515	3.540	0.812	2.836

*** p<0.001, ** p<0.01, * p<0.05, + p<0.10

라. 직무만족

취업의 질을 구분하는 변수 중 하나인 직무만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 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모형의 조정된 설명력(R^2)은 0.133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자연, 의학 전공계열($p<0.10$)로 나타났으며, 전공 계열의 준거집단인 인문 계열과 비교했을 때, 낮은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직무만족에 대한 자세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Coef.	Beta	SE	t-value	[95% Conf.Interval]	
남자	0.087	0.067	0.079	1.100	-0.069	0.242
전공계열						
공학	-0.004	-0.003	0.097	-0.040	-0.194	0.186
자연,의학	-0.166+	-0.100	0.099	-1.670	-0.361	0.029
예체능	-0.254	-0.089	0.163	-1.560	-0.575	0.067

변수	Coef.	Beta	SE	t-value	[95% Conf.Interval]	
다전공	-0.133	-0.087	0.091	-1.470	-0.311	0.045
휴학여부	-0.230	-0.085	0.150	-1.530	-0.525	0.065
대학원	-0.056	-0.028	0.118	-0.470	-0.287	0.176
수업태도	0.140	0.090	0.101	1.380	-0.059	0.338
강의의 질	0.055	0.041	0.118	0.470	-0.177	0.287
학교생활 만족도	0.174	0.126	0.124	1.410	-0.070	0.419
대학시설 만족도	0.132	0.107	0.092	1.430	-0.049	0.312
지도면담	0.027	0.023	0.070	0.380	-0.111	0.165
아르바이트	0.057	0.039	0.082	0.690	-0.105	0.218
평점	-0.088	-0.068	0.081	-1.100	-0.247	0.070
대학명성	0.000	0.038	0.001	0.450	-0.001	0.002
수도권	-0.092	-0.070	0.109	-0.840	-0.306	0.123
상수	1.892***	.	0.441	4.290	1.025	2.760

*** p<0.001, ** p<0.01, * p<0.05, + p<0.10

3. 위계적 회귀분석(HLM) 및 다층로지스틱 회귀분석(ME-logit)

본 연구는 취업의 질에 대학의 명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40개 대학, 690명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 방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ME-Logit과 HLM을 적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다. HLM을 통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존재하는 총 분산에서 대학간(between-group variance)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Intra-Class Correlation(ICC) 값을 분석했다.

가. 취업 여부

취업여부에 대한 2수준(대학수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층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층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명성은 취업여부에 대한 승산을 낮추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단층모형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8〉 취업 여부 다층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Z	[95% Conf.Interval]	
남자	-0.937***	0.193	-4.860	-1.314	-0.559
전공계열					
공학	0.385	0.236	1.630	-0.077	0.847
자연,의학	0.279	0.250	1.120	-0.211	0.768
예체능	0.227	0.445	0.510	-0.645	1.098
다전공	0.027	0.234	0.120	-0.432	0.486

변수	Coef.	Std. Err.	Z	[95% Conf.Interval]	
휴학여부	-1.447***	0.291	-4.980	-2.017	-0.878
대학원	-1.512***	0.258	-5.850	-2.019	-1.006
수업태도	-0.187	0.249	-0.750	-0.675	0.300
강의의 질	0.544+	0.299	1.820	-0.041	1.130
학교생활 만족도	0.217	0.322	0.670	-0.415	0.848
대학시설 만족도	-0.061	0.235	-0.260	-0.522	0.399
지도면담	-0.006	0.170	-0.030	-0.338	0.327
아르바이트	-0.085	0.196	-0.430	-0.470	0.300
평점	0.254	0.205	1.240	-0.148	0.655
대학명성	-0.003+	0.002	-1.820	-0.006	0.000
수도권	0.084	0.264	0.320	-0.434	0.602
상수	-0.676	1.137	-0.590	-2.903	1.552

*** p<0.001, ** p<0.01, * p<0.05, + p<0.10

나. 정규직 여부

정규직 여부에 대한 2수준(대학수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층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층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명성은 정규직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취업 여부와 마찬가지로 단층모형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9〉 정규직 여부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Z	[95% Conf.Interval]	
남자	-0.381	0.336	-1.130	-1.040	0.279
전공계열					
공학	0.447	0.420	1.060	-0.377	1.271
자연,의학	0.065	0.417	0.160	-0.752	0.882
예체능	-0.485	0.613	-0.790	-1.687	0.717
다전공	0.407	0.437	0.930	-0.450	1.263
휴학여부	-0.423	0.599	-0.710	-1.596	0.751
대학원	-1.749***	0.455	-3.840	-2.642	-0.857
수업태도	0.845+	0.440	1.920	-0.018	1.708
강의의 질	0.937+	0.509	1.840	-0.061	1.936
학교생활 만족도	-0.544	0.543	-1.000	-1.609	0.520
대학시설 만족도	-0.223	0.416	-0.540	-1.038	0.592
지도면담	-0.231	0.284	-0.810	-0.787	0.326
아르바이트	-0.377	0.351	-1.080	-1.064	0.310
평점	0.313	0.324	0.970	-0.322	0.947
대학명성	-0.001	0.003	-0.370	-0.006	0.004
수도권	0.633	0.468	1.350	-0.284	1.550
상수	-2.786	1.830	-1.520	-6.373	0.801

*** p<0.001, ** p<0.01, * p<0.05, + p<0.10

다. 임금수준

임금수준에 대한 2수준(대학수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ICC값이 0.059로 전체 분산 중 대학 수준에서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수준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학수준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표 10〉 임금수준 위계적 선형모형 ICC

	분산	SE	Confidence Interval	
집단간 분산	0.061	0.122	0.001	3.115
집단내 분산	0.968	0.028	0.915	1.024
ICC값	0.059			

세부적으로 대학명성이 임금수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들을 살펴보면 1수준(개인수준)에서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휴학경험, 대학원경험, 수업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약간의 회귀계수 값의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 임금수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E	t-value	[95% Conf.Interval]	
남자	0.245**	0.086	2.840	0.076	0.414
전공계열					
공학	0.037	0.105	0.350	-0.169	0.243
자연,의학	-0.044	0.111	-0.390	-0.260	0.173
예체능	-0.178	0.200	-0.890	-0.569	0.214
다전공	0.009	0.104	0.080	-0.196	0.213
휴학여부	0.444***	0.119	3.740	0.211	0.677
대학원	0.363**	0.112	3.230	0.143	0.583
수업태도	0.246*	0.112	2.200	0.026	0.465
강의의 질	-0.151	0.132	-1.140	-0.409	0.108
학교생활 만족도	-0.166	0.144	-1.150	-0.447	0.116
대학시설 만족도	0.031	0.105	0.300	-0.174	0.237
지도면담	0.067	0.077	0.870	-0.084	0.217
아르바이트	0.066	0.088	0.760	-0.106	0.238
평점	-0.016	0.093	-0.170	-0.198	0.166
대학명성	0.003***	0.001	3.740	0.001	0.004
수도권	0.101	0.122	0.820	-0.139	0.340
상수	1.829***	0.515	3.550	0.819	2.839

*** p<0.001, ** p<0.01, * p<0.05, + p<0.10

라. 직무만족

직무만족 수준에 대한 2수준(대학수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ICC값이 1.5e-11로 매우 낮은 ICC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과 마찬가지로 직무수준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학수준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표 12〉 **직무만족 위계적 선형모형 ICC**

	분산	SE	Confidence Interval	
집단간 분산	8.90E-12	3.190E-11	7.95e-15	9.97e-09
집단내 분산	0.590	0.023	0.546	0.637
ICC값	1.51E-11			

세부적으로 봤을 때, 대학명성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인에서도 자연, 의학전공만이 인문사회(교육)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무만족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결과**

변수	Coef.	SE	t-value	[95% Conf.Interval]	
남자	0.087	0.077	1.130	-0.064	0.237
전공계열					
공학	-0.004	0.094	-0.040	-0.189	0.180
자연,의학	-0.166+	0.097	-1.720	-0.355	0.024
예체능	-0.254	0.159	-1.600	-0.565	0.057
다전공	-0.133	0.088	-1.510	-0.306	0.040
휴학여부	-0.230	0.146	-1.580	-0.516	0.056
대학원	-0.056	0.114	-0.480	-0.280	0.169
수업태도	0.140	0.098	1.420	-0.053	0.332
강의의 질	0.055	0.115	0.480	-0.170	0.280
학교생활 만족도	0.174	0.121	1.440	-0.062	0.411
대학시설 만족도	0.132	0.089	1.470	-0.043	0.307
지도면담	0.027	0.068	0.390	-0.107	0.161
아르바이트	0.057	0.080	0.710	-0.100	0.213
평점	-0.088	0.078	-1.130	-0.242	0.065
대학명성	0.000	0.001	0.470	-0.001	0.002
수도권	-0.092	0.106	-0.860	-0.299	0.116
상수	1.892***	0.429	4.410	1.051	2.733

*** p<0.001, ** p<0.01, * p<0.05, + p<0.10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대학의 명성에 대한 변인을 주요 변수로 하여 탐색하고, 대학의 명성을 통제했을 때 대학에서의 경험과 대학교육의 성과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취업의 질 변수에 따라 이분형 변수인 취업여부와 정규직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사용했으며, 연속 변수인 임금 수진 및 직무만족은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명성은 취업할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학생, 휴학 경험, 대학원 경험이 취업을 할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의 질은 취업할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 로짓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의 성별, 휴학여부, 대학원 진학 여부, 수업태도, 대학명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직무만족에 대한 분석 결과, 자연, 의학 전공계열이 준거집단인 인문계열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명성은 취업여부와 직무만족 등 취업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나, 임금수준의 경우에는 대학의 명성이 높을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단순히 취업의 성패에 따른 취업의 여부보다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질 높은 우수한 강의가 취업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학명성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에서의 경험(휴학여부, 수업에서의 태도, 대학원 진학 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도 대학 기관 차원에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민 외(2015), 대학평가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데이터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40권 1호.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 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권 2호.

박가열, 천영민(2009),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 연구. 3권 1호.

박성재,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권 3호.

방하남, 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권 1호.

신종각, 김정호(2008), 대졸자 첫 취업기간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25권 1호.

신혜숙, 민병철, 남수경(201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성과에 대한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효과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권 2호.

이규용, 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권 2호.

이옥진(2013), 시간제 근로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 적요가능성과 결정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29권 2호.

채구목(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권 4호.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권 2호.

최기성, 어수봉, 조세형(2015), 대학 교육성과의 새로운 평가방안 연구: 취업통계 조사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6권 2호.

최옥금(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5권 1호.

Anker, R., I. Chemyshev, P. Egger, F. Mehran, and J. Ritter. 2002.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 ILO.

Abstract

The Influence of University Fame and the Achievement of University Education about the quality of employment after college.

Lee Gil-Jae, Kim heesung, Kang Ji-Yeon, Park In-Ho,
Park Tae-Yang, Ahn Eun-Bi, Cha Jun-Woo(OIRA)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university reputation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 education in quality of employment after college graduation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quality variables of employment, job status and full-time status, which are binary variables, used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ayered logit analysis, and continuous variables such as wage levels and job satisfaction were applied with regression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A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ayered logit analysis of whether or not a student is employed showed that university reputations lower the odds of finding a job. Also, Female students, vacation experience and graduate school experience showed a lower chance of getting a job, while the quality of lectures increases the chances of finding a job.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ayered logit analyses of full-time status show that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rder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wage levels, th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were used. As a result, the gender of the student, whether he took a leave of absence, whether he went to graduate school, school attitude, and university reput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shows that the job satisfaction level in group of natural science and medical major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humanities.

In conclusion, the reputation of the university does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employment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job satisfaction,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t the university, not just for university's reputation.

Key words: keep, university's reputation, job status, the quality of lectures, wage levels